

교육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회복탄력성이 취업장벽에 미치는 영향

송민선¹, 정현식^{2*}

¹건양대학교 간호대학, ²건양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Influences of Major Satisfaction, Resilience on Employment Barrier of the Education Major Students

Min Sun Song¹, Hun Sik Jung^{2*}

¹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Ko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교육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와 회복탄력성이 취업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취업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2022년 3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교육전공 대학생들에게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과 취업장벽에 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 11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성별 ($t=-3.76, p<.001$), 학년 ($F=7.33,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취업장벽은 취업준비 정도($t=-2.08, p=.040$)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들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장벽 ($r=-.54, p<.001$)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회복탄력성과 취업장벽 ($r=-.63, p<.001$)도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상자의 취업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복탄력성 ($\beta=-.48, p<.001$), 취업준비 정도 ($\beta=.16, p=.024$)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에 의한 설명력은 42.5%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교육전공 대학생들에게 취업장벽을 낮게 인식시키고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dentify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and resilience on employment barriers for education major students, an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barriers. From 8th to 31st March 2022,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self-reporting questionnaire on major satisfaction, resilience, and employment barriers for education major students. Data obtained from 116 students were finally analyzed. For data analysis, we performed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program. Our results foun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der ($t=-3.76, p<.001$) and grade ($F=7.33, p<.001$), and employment barriers was determined to be employment preparation ($t=-2.08, p=.040$). The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barriers ($r=-.54, p<.001$), and resilience and employment barriers ($r=-.63, p<.001$) of the participant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barriers were resilience ($\beta=-.48, p<.001$)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ta=.16, p=.024$),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factors was determined as 42.5%.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the necessity to develop and operate programs to increase the resilience of education major students to help them recognize low employment barriers and cope well with the stressful situation of finding a job.

Keywords : Employment Barrier, Resilience, Employment Preparation, Education Major Student, Personal Relation

*Corresponding Author : Hun Sik Jung(Konyang Univ.)

email: jhs3010@konyang.ac.kr

Received April 19, 2022

Revised June 13, 2022

Accepted August 3, 2022

Published August 31, 2022

1. 서론

고등교육현장에서 교육학과는 주로 교원양성 기관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며, 사범계학과와 일반대학 교육학과를 불문하고 학부 교육학과는 그동안 교직과정을 통해 수많은 교사를 양성하며 교원양성학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다. 더불어 교육학과가 교과 교육학과와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공통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직이론 과목(교육학 과목)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직과정을 지원·운영한다는 점은 교원양성기관 중에서도 특별한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알 수 있다[1].

교육전공 대학생들의 경우 다른 전공 대학생들보다 비슷한 직업유형, 교사 및 교육군에 직업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타 계열 학생들에 비해서 비교적 진로정체감이 뚜렷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왔다[2]. 그러나, 교육학의 사회적 영향과 학문적 발전에 비해 교육전공 대학생의 진로탐색은 개별 학과 차원에 머물고 있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과 높은 교원임용시험 경쟁률로 인하여 교육전공 대학생들은 취업이 어려워진 가운데 진로 분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3]. 교육학과 의 임용인원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이조차 교사 수요의 감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교사를 꿈꾸며 교직과정을 밟기 시작한 학생 상당수가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교직 이외의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고 있다[4].

Kim [2]은 직업관련 교육 및 진로활동과 경험이 진로 정체감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여러 계열이 혼재되어 있는 것보다 비슷한 직업목표를 가지고 교육활동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직업을 탐색하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전공만족은 학생들 개인의 졸업 후 진로 평가에 대한 기준이 된다[5]. 시간 노력, 능력 활동, 정보 수집 같은 진로준비행동은 수업 만족과 교과 만족의 전공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져 전공만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6]. 따라서, 전공만족도가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어 교육전공 대학생들에게도 전공만족도가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

재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자신의 전공에 대한 판단과 정의 산물로서, 진로나 미래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할 수록 전공만족도는 높다[7].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학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생활과 교과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므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게 된다[8]. 이러한 전공 교육이나 모델링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은 회복탄력성이며[9], 회복탄력성은 회복과 정신적 저항력을 향상시키고, 역경을 딛고 튀어오르는 탄력성을 합친 개념이다. 호텔관광전공 대학생들에서 전공만족도와 회복탄력성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10], 항공여행전공학생들은 취업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 전공만족도와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11]. 반면, 교육전공 대학생은 진로가 비교적 뚜렷하지만, 최근 인용이 제한되면서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취업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Lee [12]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긍정성과 통제성의 회복탄력성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전공만족도와 회복탄력성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나 이들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상황으로 취업난이 극심해지고 정부에서는 일자리 정책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청년들의 구직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육전공 대학생들은 다른 전공보다 비슷한 직업유형의 목표를 두고 공부하는 교육전공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공만족도와 회복탄력성이 취업장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들의 취업장벽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직업전문성 부족과 신체적 열등감의 취업장벽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3]와 취업장벽의 인식을 낮추기 위해 학점관리가 중요하며, 취업관련 교육경험을 통해 구직효능감, 취업포부 수준을 높이고 직업미결정수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연구[14]들이 있었다. 이들 연구들은 다양한 취업관련 경험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전공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아니었다.

현재까지 교육전공은 교직 중심으로 진로지원이 편향되어 있고, 교수는 교직에 종사할 것을 권장하는 등의 상황으로[15]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교육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이 취업장벽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교육전공 대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교육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 및 취업장벽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취업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C도 일개 대학의 교육전공 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표본수는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16], 회귀분석을 위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5%, 예측변수 6개(연령, 성별, 학년, 취업준비정도,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로 하였을 때, 109명이 산출되었으며, 탈락율 10%를 고려하여 120명에게 설문조사하였다. 총 117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1부의 설문지가 미흡하여 총 11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학년, 취업준비정도를 확인하였다.

2.3.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ong과 Cho [17]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2문항 4개 하위영역으로 일반만족 7문항, 교과만족 6문항, 관계만족 4문항, 인식만족 5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ong과 Cho [17]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었으며, 하위영역 신뢰도 Cronbach's α 는 .76~.88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5이었으며, 하위영역 신뢰도 Cronbach's α 는 .80~.90이었다.

2.3.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Shin, Kim과 Kim [18]이 한국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회복탄력성 척도(YKRQ-27)를 사용하였다. 총

27문항 3개 하위영역으로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으로 각 9문항씩이다. 통제성은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자기 자신의 인지와 정서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힘으로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이 포함된다. 긍정성은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는 힘으로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이 포함된다. 사회성은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잘 어울릴 수 있는 힘으로 관계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능력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Shin 등[1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67~.85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이었으며, 하위영역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88이었다.

2.3.4 취업장벽

대학생의 취업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Go [19]가 취업준비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 6개 하위영역으로 정보와 흥미부족 7문항, 미래불안 5문항, 대인관계의 두려움 3문항, 자기명확성 부족 및 중요한 타인과 갈등 4문항, 경제적 어려움 3문항, 나이와 신체적 열등감 3문항이다.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장벽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Go [19]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의 신뢰도는 하위영역 신뢰도 Cronbach's α 는 .66~.84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었으며, 하위영역 신뢰도 Cronbach's α 는 .71~.83이었다.

2.4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2년 3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교육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해당 교육전공 학과에 허락을 받고, 게시판에 모집문건을 부착하여,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자료수집 대상자들은 대면수업을 시행하는 시기에 시행하였으며, 설문조사 방법을 연구보조원에게 교육한 후, 연구보조원이 설문지를 나누어준 후 수거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으로 문구류를 제공하였으며, 설문지 소요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승인번호: KYU 2022-01-015-001)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취약한 환경의 대상자임을 고려하여 대상자 모집과 연구참여 중단에 대한 학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동안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부호화하여 관리하며,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3년간 보관 후 보관기간이 끝난 후에는 파일을 삭제하고 관련 서류는 폐기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2.6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 26.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 및 취업장벽을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 및 취업장벽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 분석은 Scheffe' test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 및 취업장벽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확인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취업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2.7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므로 연구결과해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첫째, 일 대학의 교육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 학년이 고루 분포하지 않아 향후 이러한 비율을 고려한 표본수를 확보한 대단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장벽의 영향요인까지만 파악하여 학년별로 어떤 취업교육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과 같이 대상자는 총 116명으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평균 20.47 ± 1.60 세(범위 만 18-26세)이며, 성별은 남자 12명(10.3%), 여자 104명(89.7%)이었다. 학년은 1학년 20명(17.2%), 2학년 8명(6.9%), 3학년 49명(42.3%), 4학년 39명(33.6%)이었으

며, 취업준비 정도는 중간 이하라고 답한 군은 77명(66.4%), 상이라고 답한 군은 39명(33.6%)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6)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or n(%)
Age		20.47±1.60
Gender	Male	12(10.3)
	Female	104(89.7)
Grade	Freshman	20(17.2)
	Sophomore	8(6.9)
	Junior	49(42.3)
	Senior	39(33.6)
Employment preparation	Medium to low	77(66.4)
	High	39(33.6)

3.2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 및 취업장벽

Table 2와 같이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5점 척도로 평균 4.26 ± 0.52 점이며, 교과만족 4.32 ± 0.54 점, 일반만족 4.27 ± 0.59 점, 관계만족 4.25 ± 0.63 점, 인식만족 4.17 ± 0.61 점 순이었다. 회복탄력성은 5점 척도로 평균 3.97 ± 0.50 점이며, 긍정성 4.08 ± 0.59 점, 사회성 4.08 ± 0.53 점, 통제성 3.75 ± 0.61 점 순이었다. 취업장벽은 4점 척도로 평균 1.90 ± 0.43 점이며, 하위영역은 대

Table 2. Major satisfaction, resilience, and employment barriers (N=116)

Variables	Categories	Mean±SD
Major satisfaction	Subject satisfaction	4.32±0.54
	General satisfaction	4.27±0.59
	Relationship satisfaction	4.25±0.63
	Recognition satisfaction	4.17±0.61
	Total	4.26±0.52
Resilience	Positivity	4.08±0.59
	Sociability	4.08±0.53
	Controllability	3.75±0.61
	Total	3.97±0.50
Employment barriers	Difficulty of personal relation	2.14±0.64
	Future anxiety	2.05±0.60
	Lack of self clarity, and conflict levels with important other	1.96±0.86
	Lack of information and interesting	1.92±0.50
	Economic hardship	1.76±0.54
	Ages and physical difficulties	1.48±0.49
	Total	1.90±0.43

인관계의 두려움 2.14±0.64점, 미래불안 2.05±0.60점, 자기명확성 부족 및 중요한 타인과 갈등 1.96±0.86점, 정보와 흥미부족 1.92±0.50점, 경제적 어려움 1.76±0.54 점, 나이와 신체적 열등감 1.48±0.49점 순이었다.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 및 취업장벽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 및 취업장벽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3.76, p<.001$), 여자가 남자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7.33, p<.001$), 사후검정 결과 1학년, 3학년, 4학년이 2학년에 비해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성별, 학년, 취업준비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취업장벽은 취업준비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2.08, p=.040$), 취업준비 정도가 상이라고 답한 군이 중간 이하라고 답한 군보다 취업장벽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Table 3. The difference of major satisfaction, resilience, and employment barrie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16)

Characteristics	Categories	Major satisfaction		Resilience		Employment barriers	
		Mean ± SD	t or F (p) Scheffé	Mean ± SD	t or F (p)	Mean ± SD	t or F (p)
Gender	Male	3.75 ± 0.70	-3.76 (<.001)	3.58 ± 0.82	-1.82 (.094)	2.04 ± 0.44	1.23 (.222)
	Female	4.31 ± 0.47		4.02 ± 0.43		1.88 ± 0.42	
Grade	Freshman ^a	4.51 ± 0.40	7.33 (<.001)	4.06 ± 0.45	1.69 (.173)	1.80 ± 0.40	0.47 (.703)
	Sophomore ^b	3.62 ± 0.84		3.65 ± 0.93		1.92 ± 0.52	
	Junior ^c	4.18 ± 0.49		3.93 ± 0.47		1.94 ± 0.46	
	Senior ^d	4.35 ± 0.42		4.04 ± 0.42		1.89 ± 0.37	
Employment preparation	Medium to low	4.27 ± 0.53	0.31 (.760)	3.99 ± 0.53	0.61 (.546)	1.84 ± 0.40	-2.08 (.040)
	High	4.24 ± 0.50		3.93 ± 0.43		2.01 ± 0.45	

3.4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 및 취업장벽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 및 취업장벽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와 회복탄력성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72, p<.001$), 전공만족도와 취업장벽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54, p<.001$). 또한, 회복탄력성과 취업장벽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63, p<.0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resilience, and employment barriers

(N=116)

Variables	Major satisfaction	Resilience
	r (p)	
Resilience	.72 (<.001)	
Employment barriers	-.54 (<.001)	-.63 (<.001)

3.5 대상자의 취업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취업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취업장벽에 미치는 각 변인들의 독립적인 설명력을 비교하고 일반적 특성변인 중에서 취업장벽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취업준비 정도를 더미처리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486~.995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05~2.058로 기준치인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은 2.250으로 2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정을 충족하였고, 이에 회귀모형 사용은 적합함으로 판단하였다.

회귀분석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28.64, p<.001$), 대상자의 취업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복탄력성($\beta=-.48, p<.001$), 취업준비 정도($\beta=.16, p=.024$)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에 의한 설명력은 42.5%였다.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variables influencing employment barriers (N=116)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4.17	0.27		15.42	<.001
Employment preparation_high (ref medium to low)	0.15	0.06	.16	2.30	.024
Major satisfaction	-0.16	0.08	-.20	-1.93	.056
Resilience	-0.41	0.09	-.48	-4.64	<.001

F=28.64 (p<.001) R² =.441 Adj. R² =.425

4. 논의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5점 척도로 모든 항목에서 4점 이상으로 교육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3.97점으로 긍정성과 사회성이 높았으며, 해당 대상자들의 전공 특성상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타인과 잘 어울리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장벽은 대인관계의 두려움이나 미래불안의 점수가 평균보다 높았으며, 경제적 어려움, 나이 및 신체적 열등감은 평균보다 점수가 낮았다. 공학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미래불안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으나 [20], 체육계열 대학생들은 낮게 인식하여 [21] 본 연구결과와 상이한 차이가 있어 이는 전공별 특성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비교적 진로가 뚜렷하고 교사를 목표로 하는 교육전공 대학생들에서 대인관계의 두려움이 높게 나타난 점은 코로나19의 비대면 영향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문제인지 원인을 규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장벽은 취업준비가 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중간 이하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취업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 취업준비를 더 많이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1학년부턴 체계적인 진로준비를 통한 취업까지의 로드맵을 구축하여 실현할 필요가 있겠다. 교육전공 대학생들의 진로분야를 위해 학생진로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1학년 시기는 입학 및 진로탐색, 2-4학년은 교육, 연구, 대학교원, 공무원 등 희망하는 진로 분야별 전문적 역량을 기르는 과정을 통해 최종 졸업 및 취업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Joo와 Han [15]의 연구에서도 특수체육교육 전공자의 진로지원에 대해 진로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실효성 부족을 들었으며, 진로지원에 대해 대학의 역할 수행과 진로취업에 대한 정보제공 경험 중심의 진로탐색 기회제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진로가 비교적 명확한 계열의 학생들에서도 진로지원의 요구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공별 특성에 맞는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들의 취업장벽과 전공만족도, 취업장벽과 회복탄력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취업장벽을 높게 인식할수록 전공만족도와 회복탄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들의 전공은 다르나 대학생활에서 자신의 전공만족도 중 수업만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 [22]와 전공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와 같이 [23]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장벽을 적게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다고 한 Yu [2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사고로의 전환을 통해 진로선택과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탐색이나 실질적인 행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여 취업에 있어 회복탄력성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전공 대학생들처럼 특정분야에 대한 진로를 두고 있는 비서학 전공자들의 경우는 자기명확성 및 정보부족, 미래불안, 흥미부족, 취업에 대한 불안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장벽을 느낄수록 진로준비가 부진하다고 하였다 [25]. 이처럼 교육전공 대학생들에서도 전공만족도와 회복탄력성을 높임으로써 진로준비행동과 부적관계에 있는 취업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된다.

대상자들의 취업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복탄력성, 취업준비 정도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2.5%였다. 이는 Kim [14]의 연구에서 취업관련교육경험이 적을수록 취업장벽을 높게 인식한다고 하여 취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회복탄력성이 높은 대학생들은 진로장벽을 적게 지각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진로준비행동을 높인다고 한 연구 [26]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처럼 대학생들의 취업준비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영향요인으로 제시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27] 향후 교육전공 대학생들의 의사결정능력이나 자아존중감 등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Park [28]의 연구에 따르면, 예비유아교사들에게 관계지향 모델 중심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8주간 15회 시행한 결과 회복탄력성 증진에 효과적이었으며, 정서조절, 낙관성, 공감, 자기효능감, 도전성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전공 대학생들에게도 회복탄력성 증진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했을 때 쉽게 좌절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여 직무수행능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향후 교육전공 대학생들에게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교육전공 대학생 116명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 및 취업장벽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취업장벽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교육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회복탄력성, 취업준비 정도로 이들의 설명력은 42.5%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진로가 비교적 명확한 교육전공 대학생들에게도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취업장벽을 적게 지각하도록 하기 위한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전공 대학생들에서 가장 높은 영향요인으로 제시된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1학년부터 지속적인 취업준비 교육을 할 수 있는 로드맵 설계를 통해 취업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전공 대학생들에게도 필요한 진로탐색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년별 취업장벽에 대한 지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전공 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한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C.C. Gim, J.H. Kim, "A study of curricula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al studies in Korean universiti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39, No.3, pp.111-138, Dec. 2008.
- [2] H.S. Kim, "The influence of separation-individuation and positive self-concept on career identity of college students- Focus on a university in Seoul",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45, No.4, pp.105-124, Dec. 2013.
- [3] S.C. Lee, "A study on the career development plan for the education major students in Korean universitie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24, No.5, pp.670-686, Oct. 2012.
DOI: <https://doi.org/10.13000/ifmse.2012.24.5.670>
- [4] J.H. Ahn, S.J. Lee, "Analysis of career choices made by student teacher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20, No.2, pp.27-49, May. 2012.
- [5] S.M. Hong,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the hospitality industry on their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mid COVID-19",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Vol.36, No.3, pp.1-24, Sep. 2021.
DOI: <https://doi.org/10.21719/IJTMS.36.6.1>
- [6] J.E. Lee,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type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ajor satisfaction of beauty maj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2, No.2, pp.221-230, Feb. 2022.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22.12.02.221>
- [7] K.H. Kim, H.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 No.1, pp.7-20, Dec. 2000.
- [8] J.H. Oh,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10, pp.873-884, Oct.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10.873>
- [9] J.H. Lee, H.K. Shin, "Validation special education teacher resilience measurement scales research",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48, No.1, pp.1-17, Jun. 2013.
- [10] B.C Kim, "The effects of hotel-tourism management majoring students' empathic ability on resilience and satisfaction in major: The mediating effects of gratitude disposition", *Tourism Research*, Vol.45, No.4, pp.39-61, Dec. 2020.
- [11] M.Y. Chi,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job-seeking anxiety of air tourism major students under COVID-19 pandemic: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The Association of Korea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Vol.8, No.6, pp.315-331, Dec. 2021.
DOI: <https://doi.org/10.20496/cpew.2021.8.6.315>
- [12] S.J. Lee,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job-seeking stress and effect of ego-resilience on satisfaction in major", *The Journal of Humanites and Social Sciences*, Vol.11, No.5 pp.1973-1986, Oct. 2020.
DOI: <https://doi.org/10.22143/HSS21.11.5.141>
- [13] Y.W. Kim, "Impact of job barrier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on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2, No.2, pp.155-163, Feb. 2018.
DOI: <https://doi.org/10.21184/ikeia.2018.2.12.2.155>
- [14] M.S. Kim, Y.A. Chung, "Analysis of local university students' finding employment barrier awareness level and related variables: The case study of a C universi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5, No.4 pp.163-182, Dec. 2012.
- [15] Y.H. Joo, M.K. Han, "Awareness and demand for career support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dapted physical education: Focused on graduates", *Sports Science*, Vol.39, No.1, pp.205-214, Apr. 2021.
DOI: <https://doi.org/10.46394/ISS.39.1.24>
- [16]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39, No.2,

- pp.175-191, May. 2007.
DOI: <https://doi.org/10.3758/bf03193146>
- [17] Y.J. Song, G.P. Cho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school life adjustment", *Korean Education Inquiry*, Vol.34, No.4, pp.61-77, Dec. 2016.
DOI: <https://doi.org/10.22327/kei.2016.34.4.061>
- [18] W.Y. Shin, M.G. Kim, J.H. Kim,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 Vol.20, No.4, pp.105-131, Nov. 2009.
- [19] W.S. GO, "A study on the effect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that perceived on the employment barrier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p.1-117, 2005.
- [20] M.S. Song, H.S. Jung, "Factors affecting job-seeking efficacy of college students: Focused on engineer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3, pp.160-168, Mar. 2022.
DOI: <https://doi.org/10.5762/KAIS.2022.23.3.160>
- [21] S.W. Kang, "A study on differences of career barriers, employment stress, and career development behavior among collegiate athletes, sport-majored college students, and non-sport-majored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54, No.1, pp.83-95, Jan. 2015.
- [22] J.M. Lee, "The relationships between major satisfaction, college adjust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contemporary dance",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Vol.36, No.3, pp.1-14, Jul. 2019.
DOI: <https://doi.org/10.21539/Ksds.2019.36.3.1>
- [23] Y.P. Oh, J.S. Lim, C.H. Yang, "A study on how the satisfaction of university dance majors over their department affects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Sport*, Vol.14, No.4, pp.253-261, Dec. 2016.
- [24] H.S. Yu,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go-resili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3, No.4, pp.1843-1854, Aug. 2021.
DOI: <https://doi.org/10.37727/jkdas.2021.23.4.1843>
- [25] M.J. You, A.K. Choi, "Impact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Focused o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cience-",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Vol.19, pp.129-153, Mar. 2008.
- [26] Y.S. Sheen, O.H. Kwon, "The effects of career barriers and resili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osmetology",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Vol.24, No.1, pp.343-353, Mar. 2018.
DOI: <https://doi.org/10.18208/ksdc.2018.24.1.343>
- [27] K.C. Kim, H.S. Jung, K.E. Lee, "The effect of self-esteem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ollege students on decision making ability and resilienc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11, pp.223-234, Nov. 2017.
DOI: <https://doi.org/10.14257/ajmahs.2017.11.21>
- [28] H.S. Park, "A study on developing and applying the resilience program based on the relationship-oriented model for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Vol.39, No.4, pp.87-114, Jun. 2019.
DOI: <https://doi.org/10.18023/kiece.2019.39.4.004>

송 민 선(Min Sun Song)

[중신회원]



- 2002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5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7년 3월 ~ 2013년 2월 :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만성질환간호, 노인간호

정 헌 식(Hun Sik Jung)

[정회원]



- 2005년 2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12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13년 3월 ~ 2015년 2월 : 건양대학교 강의전문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조직변화, 조직행동, 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